

朝鮮時代 裝身具論

柳 喜 卿*

目 次

I. 首 飾

II. 修 飾

III. 佩 物

IV. 단 추

V. 男子의 修飾

朝鮮王朝時代의 사람들이 몸을 단장하고 그 입은 옷의 맵시를 더한층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꾸미고 가진 修飾에는 여러가지가 있었다.

머리를 수식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각조의 「비녀」를 먼저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밖에도 여러가지 형태의 「뒤꽂이」가 있었고, 宮中이나 上流階級에서 사용하던 「칩지」와 「펼잡」, 그리고 또 머리를 修髮하기 위한 「댕기」가 있었다.

그리고 朝鮮王朝 中葉부터는 거의 그 자취를 감추다시피 한 耳飾을 또한 아니 들 수 없으며, 이제나 그제나 女人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에 指環이 있다.

이 밖에도 裝身具에는 여러가지가 있었으니, 佩物의 하나로 대표적인 것이 「노리개」였으며, 이에 부수하여 香匣·香囊·針囊·粧刀 등, 그리고 따르히 각종의 주머니가 있었고, 또 圓衫이나 여름철 적삼 등에 단 「단추」도 그 一種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朝鮮王朝時代 裝飾物에 있어서 看過할 수 없는 것은 紋樣이다.

元來 紋이란 각종 裝飾物에 있어서 人間의 美意識을 具象化하고 한편 人間의 念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절대적인 役割을 하고 있거니와, 특히 朝鮮王朝時代에 와서는 이 紋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이 紋을 材料에 따라서 때로는 刻에 의하여 그 형태를 造成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때로는 繡에 의하여 더욱 이를 美化하기도 하였다.

「노리개」나 「주머니」등 佩物에 나타난 紋樣도 위에서 설명한 바 여러 吉祥의 觀念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紋樣을 필요로 하는 다른 修飾에 있어서도 例外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紋樣들은 그 裝飾物의 材料에 따라서 刻에 의하여 그 형태를 造成하기도 하였고 繡에 의하여 더욱 이를 美化하기도 하였거니와, 刻은 곧 細工技術에 속하는 것으로 匠의 손에 의하여 그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던 傳承工藝였는데, 繡는 朝鮮王朝時代에 있어 閨房에 갇혀있던 女人들의 가냘픈 손 끝을 통해서 綿綿히 발전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技術과 사상적 배경으로 제작되어

* 한국복식연구원장

쓰여진 장신구를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首 飾

首飾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大小의 비녀와 뒤꽂이가 있었고, 上流階級에서만 사용되던 첩지, 떨잠 등이 있었으며, 또한 여러가지 모양과 이름을 가진 땡기가 있었다. 비녀나 땡기는 머리를 修髮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면서 한편 장식의 역할을 한 것이기도 하였으나, 첩지나 떨잠은 婦女가 禮裝할 때에 머리 위에 꾸미는 장식품의 일종이었으며, 뒤꽂이는 쪽진 머리 뒤에 꽂았던 비녀 이외의 각종의 首飾品을 말한다.

(1) 비 녀(簪)

朝鮮王朝時代의 女人에게 있어서 비녀는 쪽진머리의 婦女子 首飾의 하나로써 누구나가 다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비녀가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전술한 바 朝鮮王朝 後期 英祖의 女人의 髮制改革 이후의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엷은 머리에서 쪽진머리로 移行되어 간 그 과정을 이미 알아보았거니와, 엷은 머리에도 반드시 비녀의 사용이 필요치 않았던 것은 아니나, 쪽진머리에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불가결의 것이었기 때문에 쪽진머리가 일반화 되면서 비녀의 사용이 또한 일반화 되었고, 이에서 加髻에 치중하였던 奢侈는 다시 머리에 꽂는 비녀로 관심을 돌리게 되어 그 모양이 다채로와졌다. 그리하여 金銀·珠玉으로 만들어진 비녀는 그 技巧에 있어서 한 時代의 藝術性을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에서 그 種類를 살펴볼 것 같으면, 그 材料에 따라서 金비녀, 銀비녀, 白銅비녀, 鍮(鎳)비녀, 眞珠비녀, 瓔珞비녀, 玉비녀, 翡翠비녀, 珊瑚비녀, 木비녀, 竹비녀, 角비녀, 骨비녀 등으로도 나누어지지만, 또한 簪頭의 修飾에 따라서 鳳簪, 龍簪, 鴛鴦簪, 烏頭簪, 魚頭簪, 竹簪, 梅竹簪, 竹節簪, 蓮峯簪, 木蓮簪, 牡丹簪, 栢榴簪, 加蘭簪, 菊花簪, 花葉簪, 草籠簪, 胡桃簪, 葦簪, 豆簪, 腕豆簪, 珉簪, 말뚝簪, 조리簪 등으로도 구분되었다.

그런데 옛날에는 尊卑·上下의 차별이 심하였던 만큼 金銀·珠玉으로 만들어진 비녀는 上流階級에서나 사용할 수 있었으며, 庶民層 婦女들은 木·角·骨 등으로 된 비녀만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에 따라 前記한 바 簪頭의 修飾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있었던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鳳簪, 龍簪같은 것은 禮裝할 때 다래를 드린 큰 남자쪽에 꽂았으며, 다른 것들도 簪頭의 모양에 따라 그 材料를 달리하여 季節에 맞추어 큰 쪽에는 큰 비녀, 작은 쪽에는 작은 비녀를 꽂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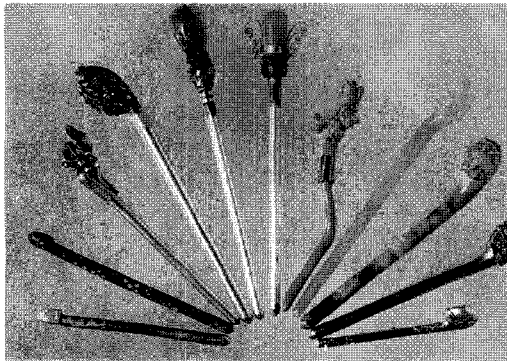
이밖에도 일종의 補助비녀라고 할까 머리핀 같이 두가닥으로 된 비녀가 있었다. 이것은 加髻 또는 머리에 다른 修飾을 할 때 머리를 고착시키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꽂았던 것으로, 대개 銀製로 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簇頭理비녀로도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참고삼아 憲宗 後宮 慶嬪金氏의 「四節服色自藏要覽」에 나타나 있는 비녀의 使用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비녀도 季節에 맞추어 織金唐衣에는 鳳簪이나 玉牡丹簪을 꽂고, 平時 問安에는 十月初一日부터 龍簪, 二月에는 牡丹簪, 四月, 八月, 九月에는 梅竹簪도 좋고, 玉牡丹簪도 꽂는다.

圓衫을 입고 큰머리에는 七寶首飾을 하고, 金箔 唐衣에는 玉鳳簪·鴛簪 또는 泥絲蓮簪을 꽂는다. 玉七寶가 무거울 때에는 金七寶를 하여도 좋으나, 原則인즉 玉七寶는 젊어서 하는 것이 좋고 金七寶는 老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조짐머리에는 十月부터 正月까지 鍍金龍簪을 꽂고, 二月에는 玉牡丹簪을 꽂는 것이 좋으나 조심스러울 때에는 銀牡丹簪을 꽂아 대신하여도 좋고, 玉牡丹簪은 호사할 때 꽂으면 더욱 좋다.



[圖 1]

五月에 白光紗唐衣를 입을 때는 珉玉簪에 鬚鬚을 꽂고, 龍簪에도 鬚鬚을 꽂는다. 春秋에는 牡丹簪·梅竹簪을 꽂으면서 위에 泥絲鬚鬚을 꽂아 수식한다.』

그런데 비녀 自體의 材料 및 修飾面에서 높고 낮고 좋고 그르고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季節에 따라 사용하는 식은 宮中이나 一般上流社會에서나 모두 이와 비슷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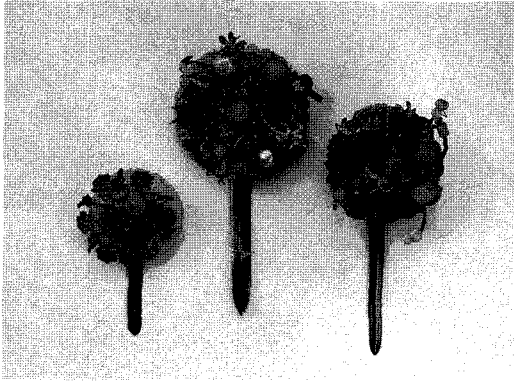
끝으로 國末 宮中 撥起에 나오는 七寶首飾을 비롯해서 비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首飾七寶

眞	玉	鳳	12개	珊	瑚	초	룽	5
泥	紗	鳳	8	眞	玉	卵		50
眞	玉	鳳	3	泥	紗	卵		40
泥	紗	鳳	3	眞	玉	卵		40
極	上	品	3	泥	紗	卵		10
攝	玉	簪						
眞	玉	簪	3	玉	蝶	卵		5
泥	紗	簪	3	眞	玉	鳳		10
眞	玉	卵	6	眞	玉	鳳		10
泥	紗	卵	6	攝	玉	唐	簪	6

- 翡小梅竹簪 二(小一, 小小一)
- 鍍金梅竹簪 二(小一, 小小一)
- 鍍金雙鳥簪 二(小一, 小小一)
- 鍍金木蓮簪 二(小一, 小小一)
- 純金雙雙簪 二(小一, 小小一)
- 純金梅花簪 二(小一, 小小一)
- 純金烏頭簪 五(小二, 小小三)
- 鍍金烏頭簪 五(小二, 小小三)

(2) 첩지와 딸잠



[圖 2]

칩지는 婦女가 禮裝할 때에 머리 위에 꾸미는 것으로, 그 형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서는 上記 머리 모양에서 잠깐 설명한 바 있다.

물론 칩지는 없은머리(加髻)에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英祖의 髮制改革 이후 없은머리 대신 쪽진머리를 하게 하고 이에 더하여 簇頭理를 하게 한데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겠는데, 그 역할은 首飾하는데도 있었겠거니와 簇頭理나 花冠같은 것을 쓸 때에 걸려서 고정시키게 하기 위한 역할을 겸하게 하는데에도 있었을 것이라

고 본다.

칩지에는 鍍金으로 만든 鳳칩지가 있었고, 鍍金 또는 銀, 아니면 黑色으로 만든 개구리칩지가 있었는데, 그 형태와 質으로써 品位를 가리었다. 즉 鍍金 鳳칩지는 王妃의 것이고 기타의 것은 階級에 따라 內命婦 또는 上流層 外命婦들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칩지의 사용은 上流階級이라 할지라도 禮裝을 갖추어 낼 때 이외에는 별로 하지 않았는데, 宮中에서는 평상시에도 하고 있었다. 그것은 宮中生活는 一般과는 달리 특수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어 어느 때이고 수시로 필요에 따라 禮裝할 때가 생김으로 해서 항상 이 칩지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 동시에, 그것은 또 宮中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上下의 階級の 표시에도 필요하였는지 모른다.

아름든 이 칩지는 朝鮮王朝 女人의 특수한 首飾品의 하나였던 것만은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떨잠은 일명 「떨철반자」라고도 한다. 이것은 儀式 때 王妃를 비롯하여 上流階級에 한해서 큰머리나 어여머리에 꽂았던 장식품으로 中國 明에서 도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떨잠에도 圓形, 角形, 蝶形 등 여러가지 모양이 있어 큰머리나 어여머리의 중심과 양편에 하나씩 꽂았는데, 이것은 최고의 修飾品으로 되어 있었거니와, 그러니만큼 대개 각종 형태의 玉板에 七寶, 眞珠, 寶石 등으로 기교를 다하여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3) 뒤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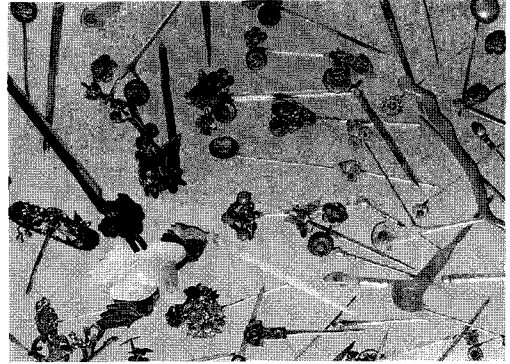
뒤꽂이는 쪽진머리 뒤에 덧꽂는 비녀 이외의 修飾物을 총칭하는 것이며, 이에는 끝이 뾰족한 단순한 뒤꽂이 이외에 실용적인 면을 겸한 「귀이개」, 「빗치개 뒤꽂이」 등이 있었다.

그리고 뒤꽂이는 그 재료에서나 頭飾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음은 물론이며, 이것도 宮家·班家·一般의 品位나름으로 그 優劣을 가려 사용하였던 것이다.

일반 뒤꽂이의 대표적인 것은 「과판」이라 하여 菊花모양의 장식이 달린 것이 있었고, 「연봉」이라 하여 막 피어오르는 연꽃봉오리를 본따 만든 장식이 달린 것이 있었으며, 이밖에도 梅花,

花蝶, 나비, 天桃, 鳳 등의 모양을 장식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珊瑚, 翡翠, 寶石, 七寶, 파란, 眞珠 등으로 꾸미고 있어, 女人의 검은 윤택나는 머리를 더욱 화사하고 아름답게 꾸며주고 있었다.

「빗치개」는 女人에게 있어서 머리를 빚는 道具中에서 빗(梳) 이외에 가장 필요성이 많은 것으로서, 그것은 가리마를 갈라 머리를 整齊하는데 필요할 뿐더러 밀기름을 바르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빗치개 노릇을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圖 3]

그래서 이에는 質의 優劣, 크기의 差異 등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개는 빗이나 빗집, 面鏡, 쪽집개, 살쩍밀이, 분통 등과 함께 鏡臺에 간직해 두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쪽진머리에 꽂아 머리를 장식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만들어서 首飾物의 하나로 사용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귀이개」는 원래 귀에지를 우비어 파내는 기구인데 이것도 장식화하여 쪽진머리에 꽂게 한 것으로, 이에는 귀이개역할만을 하는 하나짜리가 있고 또 귀이개와 함께 꽃이가 가지처럼 달린 것이 있었다.

II. 修 飾

1. 耳飾 및 指環

우리 나라 女人들의 耳飾이나 指環 등을 愛用한 歷史는 멀리 上古時代에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古代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貴金屬으로 된 장식품은 黃金製의 寶冠을 비롯하여 膀帶, 腰佩, 釧(팔찌), 指環, 耳鐺(귀고리), 瓔珞(목걸이) 등 여러가지가 있어서, 특히 朝鮮王朝에서는 金銀에 있어 中國 明에 進貢하는 것을 이어대기 어려웠을 뿐더러 免進貢 政策을 위해서나 服飾 뿐 아니라 각종 器物에 이르기까지 이의 사용을 금하였기 때문에, 비단 耳飾이나 指環에서 뿐만 아니라 前記「비녀」등 각종 首飾物에 있어서도 金銀의 사용은 극히 제한되어 그 빛을 잃고 있거니와, 아마도 이것이 古代에 그렇게도 찬란하였던 金銀細工을 退步시킨 理由의 하나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1) 귀고리(耳鐺), 귀걸이

무릇 耳飾은 洋의 東西와 時代의 古今을 不問하고 널리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朝鮮王朝 女人에게 있어서도 修飾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의 하나였다.

그런데 漢人은 원래 耳飾을 몰랐다가 異族으로부터 이것을 본받아 鑷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거니와 이렇게 耳飾이 漢人들의 원래의 것이 아니라 해서 朝鮮王朝 後半期에 내려와서는 祖上들의 慕華思想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 女人에게도 耳飾의 風習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이로써 오히려 朝鮮王朝 前半期에 있어서는 男女間에 耳飾의 俗이 盛行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비록 그 찬란함에 있어 上代의 것만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연유되어 내려온 것이니만큼, 이미 上代社會 修飾에서 알아본바 耳飾을 다시한번 想起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에서 遺憾으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당시의 遺物이나 繪畫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朝鮮王朝社會의 服飾에서 論外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 그 材料와 形態는 上代社會의 耳飾에서 본 바 이에 맡기고, 여기에서는 이 俗의 變移를 알아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李圭景은 그의 「五洲衍文長箋散稿」 중 珥鑷辯證說에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이를 要約해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婦女의 容飾은 매우 많은데 우리 나라에는 珥鑷이 있다. 그리하여 士大夫家의 醮禮에는 珥鑷을 사용하는데 耳朵에 걸 뿐이었다. 그런데 松都和 兩西에서는 반드시 耳垂(귓볼)를 뚫고 작은 銅環을 꿰었는데 이는 夷裔의 풍속이 아직 남아 있는 까닭이며, 다만 閭巷의 匹婦와 賤女가 그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明使 董越의 朝鮮賦에서는 上流階級이나 下流階級이 똑같이 하고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느냐고 이를 나무라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도 이 風俗은 있었던 것이다.

釋名에는 穿耳施珠를 鑷이라고 하였으며 蠻夷의 婦女가 輕浮好走하므로 琅鑷을 늘어 뜨렸는데 中國人이 이를 모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壽壽集을 보면 宣祖 五年 壬申에 政院에 傳教하여 말하기를 身體髮膚는 이를 父母로부터 받았으니 감히 毀傷하지 않음이 孝의 첫이라 하였거니와, 우리 나라의 大小男兒는 반드시 그 귀를 뚫고 環珥를 만들어 걸고 있어 中國의 나무람을 받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中外에 曉諭하여 胡習을 通革하라 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생각할 때 女子만이 貫耳한 것이 아니라 男子도 또한 그러했음을 알 수 있다. 宣祖의 聖諭는 이 夷蠻의 陋習을 化하자는데 있으며, 이 風習은 高麗로부터 흘러 내려왔는데, 高麗는 즉 蒙古의 胡風에 傳染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儀式이나 婚禮 때 上流階級에서는 耳飾을 하였다는 것이며 그것은 耳朵에 걸었는데, 松都和 黃海·平安 兩都에서는 귓볼을 뚫고 작은 銅環을 꿰었음을 보며, 또한 巷刊의 匹婦나 賤女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上代社會에서와 같이 비단 女子 뿐만이 아니라 男子들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風俗은 원래 中國의 것이 아니고 胡習에서 온 것이라 하여 宣祖 때 이를 고치라는 諭示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宣祖朝까지는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男女를 막론하고 「귀고리」

로서의 耳飾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것은 慕華思想이 골수에 박힌 識者間에는 胡鬚으로 여겨졌던 것이고, 또한 穿耳함은 儒敎思想에 비추어 볼 때 不孝莫甚한 일이었던 것이다.

宣祖의 諭示가 있는 후 우리 나라 女人들의 耳飾은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음을 보는데, 그 형태가 바꾸어짐에 따라 평상시에 耳飾하는 風俗은 그 자취를 감추어 갔던 것이며, 더욱이 男子의 耳飾은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朝鮮王朝時代 後半期의 耳飾의 특징은 古代의 귀고리 모양 耳朶를 뚫어 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귀저리」를 만들어 껏바퀴에 걸게 되었으며, 그 장식도 단조롭고 때로는 여기에 그 단조로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五色의 술이 달려 있기도 하였다.

(2) 指 環

우리 나라 上代社會에서는 指環 뿐만이 아니라 「팔찌」, 「목걸이」는 물론 足環까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新羅의 舊習을 이어 받아 좃았던 高麗에서 그대로 繼承되었을 것이며, 또한 朝鮮王朝時代에도 傳承되었어야 하였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본다.

이것은 朝鮮王朝의 崇儒思想이 女人의 生活을 閉鎖하였고 엄격한 家父長的 制度 밑에서 開放된 生活에서와는 달리 오직 婦德을 닦아야 하는 것이 당시 女人의 부가된 의무였기 때문에 자기 몸 치장에는 어떤 限界가 있었으며, 또한 前述한 바 나라 政策이 金銀의 사용 금지와 더불어 服飾禁制 또한 엄한 가운데 奢侈性을 띤 과분한 修飾을 할 수 없었다는데 기인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足環은 차치하고라도 「목걸이」나 「팔찌」 등 이에 대한 기록은 물론 遺物도 찾아볼 수 없으니, 여기에서는 遺物이나 남아 있는 指環만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指環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가락지」와 「반지」가 있었다. 朝鮮王朝時代의 것으로 남은 遺物의 指環으로서는 鍍金 또는 銀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보는데, 이는 治外法權에 속한다고 할 宮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밖에 七寶·玉·瑪瑙·琥珀·翡翠·眞珠·銅으로 만든 것이 있어 그 종류에 따라 季節에 맞추어 끼기도 하였는데, 그 기교면에서는 지극히 단순한 것이 있어 오히려 그 단순성이 朝鮮王朝時代의 특징일지도 모른다.

指環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上代社會나 高麗·朝鮮王朝社會에 있어서도 上流階級 아니면 常民階級이라도 부유한 집안에서만 끼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一般 庶民層에서도 婚禮式이나 慶事 때 禮服이 허용되매 차츰 이를 낀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참고삼아 前記한 바 있는 憲宗 後宮 慶嬪 金氏의 「四節服色自藏要覽」에 나와 있는 指環 사용의 例만을 다시 들어보면 다음과 같거니와, 이것은 王妃를 비롯한 宮中 및 上流社會에 있어서의 使用例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가락지는 十月부터 正月까지 金指環을 끼고, 二月, 四月은 銀七寶指環을 끼고 나서 五月 端午 絹紗唐衣를 입을 때에 玉가락지나 瑪瑙指環을 끼고 八月 炎間에는 光紗唐衣를 입을 때에는

七寶指環을 끼어 七月 貢緞唐衣를 입을 때까지 계속한다. 規則이 이러하니 여름에는 金을 못끼고 겨울에는 玉을 못끼나 春秋에는 옷에 따라 마음대로 낀다.」

이에서는 겸하여 指環의 種類도 알 수 있는데, 國末 純宗 王世子이 당시 첫번 嘉禮 때 嬪宮 (純明皇后 閔氏)에게 내린 指環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으니, 이것들이 朝鮮王朝時代의 指環의 대표적인 것이었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再揀擇후 보낸 것	嘉禮時
純金 細瑚 指環 一雙	眞珠粧 珊瑚 指環 一雙
珊瑚 指環 一雙	眞珠粧 錦貝 指環 一雙
三揀擇후 보낸 것	眞珠粧 紫瑪瑙 指環 一雙
眞珠粧 鍍金 조이 指環 一雙	翡翠玉 指環 一雙
珊瑚 指環 一雙	密花 指環 一雙
密花 指環 一雙	玉 指環 一雙
純金 指環 一雙	孔雀石 指環 一雙

III. 佩 物

佩物은 사람이 몸에 차는 장식물을 말하거니와, 朝鮮王朝 女人에 있어 佩物은 각종 「노리개」와 「주머니」로 大別할 수 있다.

佩物의 歷史는 人類가 衣生活을 營爲하게 되면서부터 自身의 몸을 裝飾 美化하려는 요구에서 裝身具의 하나로 생겨난지 오래인 것인데, 우리 나라 服飾史에서 이를 보면 朝鮮王朝 이전에는 佩物은 衣服構造上 흔히 허리띠(腰帶)에 찌기 때문에 腰佩라고도 불리었으며, 徐兢의 高麗圓經 貴婦條에서 보더라도 高麗의 貴族階級の 婦女들은 腰帶에 金鐸·錦香囊을 佩用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이를 立證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高麗 後期에 들어와서 蒙古 服飾의 영향을 받아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면서 옷고름이 보편화 되매, 佩物은 비단 허리띠에만 차게 된 것이 아니라 옷고름에도 차게 되었으니, 朝鮮王朝 女人의 「노리개」가 그것이다.

(1) 노리개

노리개는 저고리 길고름, 안고름 또는 치마허리에 맞는 女子의 裝身具의 일종으로서, 그 外貌는 화려하고 고귀하며 섬세하고 다양하여 우리 固有 衣裳에 미를 한층 더 강조해 주고 있다.

또 노리개는 그 만듦새와 색에 따라서 그 背景인 衣服 上下衣의 색체에의 조화를 이루는 役割을 하고 있으며, 짧은 저고리 길이와 긴 치마 길이에 대한 衣服 全體의 조화도 이루어 주고 있다.

노리개는 宮中은 물론 上流社會에서 平民에 이르기까지 온 女性들에게 愛用되어 온 것으로, 宮中儀式이나 慶事時에 佩用하였으며 또 간단한 것은 日常時에도 즐겨 佩用하였다.

이와 같이 朝鮮王朝時代 온 女性에게 愛用되어 온 노리개는 親家나 媿家에서 禮物로 받기도 하고 또는 친밀한 사이에 선물로 교환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子女에게 물려주는 風習도 있었는데, 또한 兩班階級에서는 집안에 傳來하는 노리개를 子孫代代로 물려줌으로써 그 家系의 表示로 삼기도 하였다.

그런데 노리개는 季節에 따라 또는 그 材料와 크기에 따라 佩用하는 位置나 使用法이 달랐다. 즉, 金銀노리개는 주로 가을 겨울에 사용하였고, 5月 端午날부터는 일제히 玉노리개, 翡翠노리개 또는 玉粧刀와 같은 한개짜리 單作노리개를 찾으며, 8月 보름이 되면 일제히 세개짜리 三作노리개를 찾다고 한다. 또 地域別로도 차는 風習이 달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考證은 없다.

이에 노리개의 材料와 취택한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材料：金屬類로서는 金, 銀, 銅 등이고, 玉石類로서는 白玉, 翡翠玉, 紫瑪瑙, 紅玉, 青剛石, 眞玉, 金剛石, 孔雀石 등이며, 寶貝類로서는 密花, 珊瑚, 眞珠, 金貝, 玳瑁, 琥珀 등이고, 또 色絲, 綢緞, 金銀絲 등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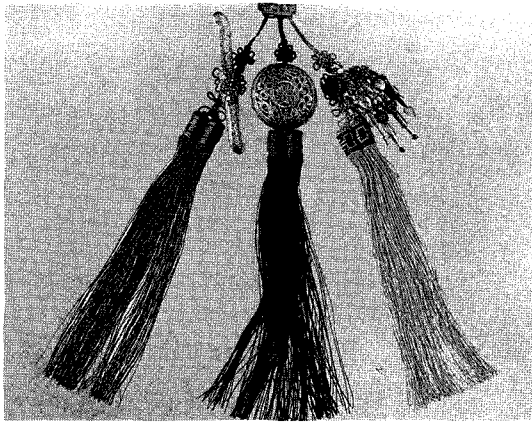
그런데 純金은 王室에서도 사용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金이라 함은 鍍金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玉石·寶貝類도 그 產出量이 적어 中國에서 由來한 사실이 朝鮮王朝實錄 등 여러 기록에서 보인다.

形態：自然에서 얻은 형태로는 童子를 비롯해서 박쥐, 거북, 나비, 오리, 붕어, 매미, 자라, 해태 등의 動物과 가지, 고추, 포도송이, 목화송이, 도토리, 호도, 天桃, 蓮花, 水蓮, 春松, 잣송이 등의 植物이며, 生活周邊에서 얻은 형태로는 호로병, 주머니, 鍾, 표주박, 북, 장고, 안경집, 자물쇠, 도끼, 버선, 방아다리, 방울, 投壺, 粧刀, 石燈, 벼루 및 각종 文字 등이고, 이밖에 佛手, 念珠 등 다양한 것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대개 長壽를 비는 뜻에서, 또는 厄을 피하는 뜻에서, 혹은 福을 비는 뜻에서, 宗教的인 어떤 念願을 위하는 뜻에서 취택한 것이었으며, 거기에는 장식의 뜻 이외에 實用的인 면에서 사용된 것이 있는데, 香匣, 香囊, 針囊, 粧刀 등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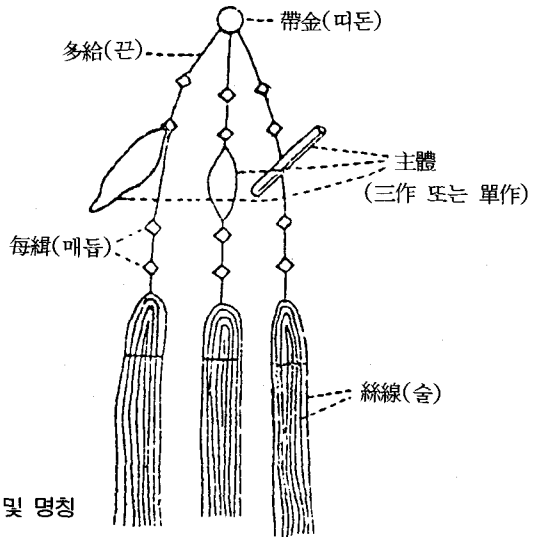
이와 같이 金銀, 玉貝 등으로 만들어진 노리개의 製作은 細工技術로서 먼 옛날 新羅의 細工技術이 獨步였음을 말했듯이 朝鮮王朝時代의 그것도 現代 技術工이 쫓지 못할 정도로 섬세하여, 그 종류만을 들어 본다 하더라도 線刻, 陽刻, 透刻 및 眞珠·珊瑚·青剛石 등의 嵌入金銀細工이 그것이고, 또한 이의 惠澤을 받지 못한 一般社會에서의 婦女子들의 五色의 비단 형겼을 이용하여 여러가지로 정성껏 繡 놓아 만든 「괴불」(대개 三角形 모양에 숨을 넣어 周圍를 色실로 곱게 꿰맸다.) 등의 作品은 天下一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노리개는 構成에 있어서 帶金(띠돈), 多繪(근), 主體(三作 또는 單作), 每緝(매듭), 流蘇(술) 등 다섯가지로 되어 있다.



[圖 4]

노리개의 構成 및 명칭



帶金 즉 「띠돈」은 最上端에서 單作일 경우에는 單獨으로 三作일 경우에는 3個의 主體를 따로 연결한 多給(끈)을 한곳에서 정리하여 裏面에 마련한 고리로 고름에 걸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띠돈은 金銀, 白玉, 翡翠玉, 金貝, 珊瑚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그 형태는 正四角形, 矩形, 圓形, 花形, 나비形, 四葉形 등이었으며, 花紋, 雙喜字紋, 龍紋, 不老草紋 등의 吉祥紋樣을 장식하여 그 색채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이루었다.

多給 즉 「끈」은 帶金, 主體, 每緝, 流蘇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끈」에는 실을 合絲하여 두가닥, 세가닥 또는 그 이상으로 꼬은 끈과 여러가닥으로 쳐서 만든 짜는 끈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大典會通」에서 보면 짜는 끈을 多給라 칭하고 끈 만드는 것을 多給친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多給에는 幅이 넓은 廣多給와 끈목의 둘레가 둥근 圓多給가 있었는데, 노리개에 주로 사용된 多給는 圓多給였으며, 다음에 설명코자 하는 每緝이나 流蘇도 이 圓多給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다.

主體는 三作 또는 單作 그 자체를 말한다.

每緝 즉 「매듭」은 主體를 중심으로 上下에 있어 主體를 보다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 밑에는 술이 아름다운 빛갈로 달려 있다.

「매듭」은 그 빛갈이 紅·藍·黃의 三原色으로 하여 분홍, 연두, 보라, 자주, 옥색 등을 혼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듭을 노리개에 사용할 때 노리개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되어서 一律的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대체로 大三作이나 中三作과 같은 크고 호화스러운 것에는 자그마한 매듭을 사용하였고, 귀여운 小三作에는 「국화매듭」, 「가지방석매듭」 등 큼직한 매듭과 中間크기의 매듭 및 작은 매듭을 번갈아 썼으며, 金三作·銀三作·玉三作과 같은 무거운 것에는 中間크기의 매듭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참고삼아 매듭의 종류를 보면, 女服의 단추로 쓰이던 「연봉매듭」을 비롯해서 男服의

龍袍나 官服에 붙는 「말쌈매듭」, 가락지처럼 생긴 「도래매듭」, 그리고 각기 그 형태에 따라 「벌매듭」, 「장구매듭」, 「나비매듭」, 「잠자리매듭」, 「생쪽매듭」, 「딸기매듭」, 「망사매듭」, 「난간매듭」 등이 있었는데,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것은 「釋氏매듭」과 「引路王줄매듭」이었다고 한다.

매듭은 服飾에 뿐만 아니라 장식물로서도 그 用途가 多方面에 걸쳤는데, 大典會通 工典에 보면 매듭을 하는 匠人을 每緝匠이라고 하였으며, 옛날 「시구문안」(지금의 光熙門: 乙支路 6街 一帶) 일대는 실·끈·매듭의 匠人들의 본고장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매듭은 匠人에 의하여 傳承되어 온 工藝品이기도 하였지만 宮中需要의 一部는 內人들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 지기도 하였으며, 또 여염집에서도 간단하고 실용적인 것은 婦女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져 어느정도 일반화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流蘇라는 것은 갖가지 빛깔로 물들인 명주실로 여러 종류의 多繪를 쳐서 그것으로 用途에 따라 다양한 매듭을 맺고 그 끝에 「술」을 달아 드리운 것을 말한다.

「술」의 종류로는 「봉술」, 「딸기술」, 「방망이술」, 「끈술(뉘지발술)」, 「방울술」, 「戰服술」, 「금전지술」, 「잔술」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노리개에 사용되는 것은 흔히 「딸기술」, 「봉술」, 「끈술」 등이며, 이상의 술 가운데에서 「딸기술」, 「봉술」, 「방망이술」, 「잔술」 등은 보통 둘로 하여 쌍술을 썼고, 그 외는 個數의 증가에 따라 「三봉연술」, 「五봉연술」, 「七봉연술」 등으로 하여 사용하였다.

술은 佩物의 크기에 따라 그 大小를 맞추어 쓰도록 되어 있는데, 芮庸海는 그의 「人間文化財」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거니와, 이는 술에 대하여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女性들의 裝身具였던 노리개 술에는 3장, 5장, 7장, 12장술까지 있어서 이들은 5色 아니면 12色으로 색색이 具色을 맞추어 단조롭고 우아한 우리 在來 服色에서 아름다움을 더하는 액센트를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노리개」의 다양한 「매듭」 부분은 짧은 저고리 길이를 닮았고, 「술」의 부분은 긴 치마 길이를 닮았으면서 상식을 이루는 관계는 매우 재미롭고 흥미롭다 아니할 수 없다.

술도 매듭과 마찬가지로 그 需要를 충족하기 위하여 諸宮과各司에 匠을 두어 一定數의 匠人을 예속시키고 이를 제작케 하였으니, 大典會通 工典에 나오는 練絲匠, 合絲匠, 紅染匠, 靑染匠, 多繪장 및 前記한 바 每緝匠 등은 노리개와 관계가 있는 匠들이었다.

(가) 三作노리개

노리개 3個를 함께 佩用하는 것을 「三作노리개」라고 하며, 그 크기나 규모 및 사용한 材料에 따라 어느 정도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三作노리개는 여기에 달려 있는 金銀·玉石·寶貝의 진귀함과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大三作, 中三作, 小三作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또 三作노리개는 그 사용한 材料 및 形態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였는데, 즉 3個가 형태는 다를지라도 재료가 같을 때에는 그 재료에 따라 金三作, 銀三作, 玉三作, 翡翠三作, 紫瑪瑙三作,

密花三作 등으로 불렀고, 3個의 재료가 다르다 하더라도 형태가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 胡蘆瓶三作, 投壺三作, 박쥐三作, 나비三作, 童子三作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大三作노리개는 가장 호화롭고 큰 것으로 주로 宮中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며, 王妃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는 「三千珠노리개」는 佛敎에서 말하는 三千大千世界를 상징하는 것으로 매우 큰 眞珠를 3씩 꿰었다고 한다. 中三作노리개는 宮中이나 上流階級에서 佩用하였으며, 小三作노리개는 젊은 婦女나 어린이들이 佩用하였다.

여기에서 참고삼아 宮中에서 사용된 노리개의 종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이것은 純宗의 丁亥 冠禮時 大殿貝物單子 및 壬午 嘉禮時 佩物件記에서 추려본 것이다.

- (1) 孔雀石仙桃 珊瑚仙桃 密花仙桃 一줄
- (2) 孔雀石仙桃 珊瑚仙桃 眞珠仙桃 一줄
- (3) 密花仙桃 珊瑚仙桃 翡翠玉仙桃 一줄
- (4) 孔雀石仙桃 紫瑪瑙仙桃 玉仙桃 一줄
- (5) 密花蒙伊 珊瑚蒙伊 眞珠蒙伊 一줄
- (6) 密花蒙伊 珊瑚花枝 翡翠玉花枝 一줄
- (7) 密花蒙伊 珊瑚樹 玉蝶一雙 一줄
- (8) 密花蒙伊 珊瑚樹 孔雀石蝶一雙 一줄
- (9) 密花蒙伊 珊瑚樹 玉粧刀 一줄
- (10) 密花蒙伊 珊瑚樹 翡翠玉一雙 一줄
- (11) 密花蒙伊 珊瑚蒙伊 孔雀石蒙伊 一줄
- (12) 眞珠蒙伊 珊瑚佛手 孔雀石花枝 一줄
- (13) 孔雀石茄子 珊瑚茄子 密花茄子 一줄
- (14) 孔雀石茄子 紫瑪瑙茄子 密花茄子 一줄
- (15) 孔雀石茄子 紫瑪瑙茄子 眞玉茄子 一줄
- (16) 密花鮒魚 珊瑚鮒魚 翡翠玉鮒魚 一줄
- (17) 密花鮒魚 紫瑪瑙鮒魚 玉鮒魚 一줄
- (18) 珊瑚佛手 翡翠玉佛手 密花佛手 一줄
- (19) 孔雀石木蓮 珊瑚木蓮 密花木蓮 一줄
- (20) 孔雀石木蓮 珊瑚木蓮 玉木蓮 一줄
- (21) 孔雀石木蓮 珊瑚木蓮 眞玉木蓮 一줄
- (22) 孔雀石花枝 珊瑚花枝 密花花枝 一줄
- (23) 珊瑚珠 密花珠 孔雀石珠 一줄
- (24) 珊瑚珠 密花珠 玉蝶一雙 一줄
- (25) 眞珠茄子 珊瑚樹 眞玉蝶一雙 一줄
- (26) 孔雀石龍刻佩 紫瑪瑙刻佩 密花龍刻佩 一줄

(27) 錦佩七寶佩 紫瑪瑙七寶佩 翡翠玉七寶佩 一줄

(28) 孔雀石壽福康寧佩 紫瑪瑙壽福康寧佩 密花壽福康寧佩 一줄

이것으로서 당시 宮中에서 사용한 三作노리개의 樣相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에서 볼 때 材料面에서는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세가지가 각기 다른 材料를 사용한 三作이라는 점을 들 수 있으며, 形態面에 있어서는 材料는 달라도 形態가 같은 것이 있고 각기 다른 것도 있다. 이것이 朝鮮王朝 末葉에 이르러서는 三作 모두 같은 材料를 사용하고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 사용한 것도 있으며 형태도 여러가지의 것이 생겼다.

그런데 형태가 동일하고 재료가 다르면 色彩面에 있어서 다양하며 아름답고, 동일한 형태 및 재료의 경우는 단순하면서도 단아한 멋이 있었다.

(나) 單作노리개

三作노리개는 하나를 따로 佩用함으로써 「單作노리개」가 되며, 따로 하나만으로 된 노리개도 單作노리개이다. 單作노리개는 慶事 때는 물론 日常時에도 썼었다.

三作的 하나가 아니라 단독으로 된 單作노리개에는 일반적으로 香匣을 愛用하고 繡香囊을 정성들여 만들어 썼는데, 이밖에도 七寶를 채색한 노리개繡를 만든 繡노리개 등 그 형태는 각양각색의 것이 있었으며, 또 針囊, 粧刀 등을 단 것도 있었다.

여기에서 香匣이나 香囊, 針囊, 粧刀 등은 장식적인 면에서 사치성을 지녔으면서도 한편 실용성도 겸했던 것이다.

① 香匣·香囊·발향

香匣은 香을 담은 匣이며, 香囊은 香을 넣은 주머니이고, 발향은 香을 등글게 비벼서 토막 토막 잘라서 구슬발과 같이 실에 꿰어 香 자체를 그대로 佩用함으로써 장식구적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은근히 풍기는 芳香은 女性의 人品을 더욱 고상하게 하였거니와 옛 사람들의 情趣를 가히 짐작할만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香은 주로 麝香 같은 것이어서 靑亂(靑亂)을 일으켰을 때와 같은 危急時 救急藥으로도 사용하였다 하니, 先人들의 그 賢明함을 엿볼 수가 있다.

먼저 香匣을 보면 金喜鎮은 「근목과 매듭」에서 「香匣 속에는 紅甲紗를 한겹 곱게 바르고 그 속에 香을 꿰게 되어 있으므로 精巧하게 透刻된 香匣의 紋樣사이로 내비치는 다홍빛과 白玉이나 翡翠의 調和는 섬세한 圖案의 均衡美와 더불어 한층 孤高한 멋을 돋보이게 한다.」라고 하였거니와, 匣의 곁은 金銀, 翡翠, 玉, 瑪瑙, 密花, 鍍金 등으로 각종 吉祥紋을 곁들여 여러가지 다채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이에 金絲로 엮어서 만든 것도 있었다.

香匣의 特徵은 上下에 작은 고리가 있어 매듭의 上下端을 따로 맺고 香匣 속으로는 多繪 끈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며 下端部가 開閉式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 香囊은 주로 漢緞, 貢緞, 錦緞 등속의 綢緞種類를 가지고 香주머니를 만든 것으로서 그 색채는 주로 草綠色, 洋草綠色, 粉紅色, 多紅色, 玉色, 柳青色 등을 사용하여 호화롭고 아름다

웠으며 그 형태 또한 다양하였고, 여기에는 각종 紋樣을 공들여 繡놓고 있어 더욱 裝飾美를 돋구어 주고 있기도 하였다.

특히 香囊 중 가장 高貴하게 만들어진 것은 「眞珠琅子」라고 하여 이것은 王妃 正裝에만 찻던 것이라고 하는데, 國末 尹妃(純宗妃: 純貞孝皇后)의 것을 보면 紅色 貢緞 주머니 全面에 녹두알 만한 아주 작은 眞珠를 數 없이 金絲에 꿰어 달고 있다. 이것은 옆이 20센티, 높이가 12센티 정도의 크기의 것인 것으로 보아 노리개에 매단 것은 아니고 보통 項鍊과 같이 단독으로 찬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것을 尹妃되는 媿父되는 高宗皇帝로부터 下賜 받아 嘉禮때나 朝見儀에 佩用하였으며, 이후 純宗 生前에는 眞殿 茶禮 때마다 찻었다고 하거니와, 그 다홍 바탕에 眞珠 알알이 반짝이는 찬란한 모습은 황홀할 정도였다고 한다.

끝으로 「발향」은 漢沖香을 匣이나 囊에 넣지 않고 그대로 佩用한 것이며, 香의 모양에는 扁蝠形, 四角形, 八角形, 圓形 등이 있어, 扁蝠形으로 된 것을 실에 꿰어 「박쥐향」이라 하였고, 또 그 香의 모양이 어떻든 金絲에 꿰어 「金絲香」이라고도 하였는데, 香을 紅·白·綠·黃 등 四色으로 하여 실에 꿰어 念珠모양으로 만든 것을 「줄향」이라고 하여 이것을 尙宮이 宮中에서 치마속에 찬 것이라고 한다.

② 針 囊

針囊은 「바늘집」이라고도 한다. 바늘집에는 金屬으로 만든 것도 있었지만 대개는 비단에 繡놓아 만들어 갖기도 하였고 또 노리개 삼아 佩用도 하였었는데, 아랫 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 아랫 부분 속에는 머리털을 가득히 넣고 바늘을 꽂게 되어 있었으며, 윗 부분은 뚜껑의 역할을 하고 있어 아랫 부분을 닫게 되어 있었다.

針囊을 노리개 삼아 佩用하게 된 것은 婦女子들이 항상 사용하는 바늘을 손쉽게 찾아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였으며, 이것도 실용적이었던 것이 장식화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③ 粧 刀

崔南善의 「故事通」을 보면 「지금은 舊習이 되었거니와 男女의 옷고름에 차는 粧刀는 形體와 佩用法이 순전히 蒙古風임이 분명하다.」 하였거니와, 이로써 볼때 男女間에 粧刀의 佩用은 高麗가 元에 服屬한 그 후부터라고 보며 朝鮮王朝時代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그대로 成習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女性에 있어서의 粧刀는 장식용으로 뿐만 아니라 護身用으로도 사용되었으니, 壬辰倭亂 당시의 實例가 기록에 남아 있기도 하다. 深閨의 女性이 平素 粧刀를 지니고 그것으로 有事時에 自決 또는 抗敵했다는 사실은 朝鮮王朝 女人의 슬기로움과 또한 당시의 倫理觀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婦女子들은 粧刀를 주머니 속 아니면 노리개에 차고 있었는데, 노리개에 찬 것을 佩刀라고 하였으며 주머니 속에 지닌 것을 囊刀라고도 하였다.

佩刀는 큰 것이 길이가 全長 5寸, 刀身 3寸이었으며, 작은 것은 전장 3寸, 刀身 1.5寸이었고, 囊刀는 全長 3寸, 刀身 1.5寸의 크기가 보통이었다.

粧刀의 칼자루 및 칼집의 材料는 犀角, 牛骨, 黑色, 沈香, 黑柿, 棗木, 珊瑚, 金貝, 琥珀, 玳瑁, 翡翠, 孔雀石, 金剛石, 玉, 密花 등으로 만들고 장식하였는데, 노리개용으로 흔히 사용된 것은 玉石, 寶貝類로 아름답게 장식한 것이었으며, 나중에는 銀 또는 白銅, 鍍金 등으로도 만들어 사용하였음이 遺物에 보인다. 그리고 칼날은 鋼鐵을 쓰되 刀身에는 「一片丹心」이라는 글씨를 紋樣化하여 새긴 것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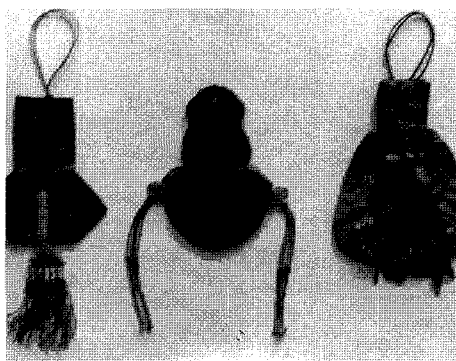
또 粧刀의 型으로는 칼자루와 칼집이 圓筒形으로 된 것, 乙字꼴로 된 것, 네모형으로 된 것, 여덟모형으로 된 것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粧刀에는 또 銀箸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外部에서 食事하게 되는 경우 젓가락으로 사용도 하고 飲食中の 毒의 有無를 分別하기 위한 方便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說이 있다.

그리고 金貝, 琥珀 등의 材料로 粧刀 또는 「가락지」를 만들어 몸에 지닌 것은 奢侈에서 뿐만 아니라 몸에 不意의 傷處가 나서 出血할때 이를 칼로 깎아 바름으로써 止血을 시켰다고 하니, 前記 香匣이나 香囊, 「발향」에서와 같이 救急의 역할까지 하였던 것이라고 본다. 이에서도 先人들의 그 지혜로움을 알 수 있다.

(2) 주머니(囊)

「주머니」의 歷史는 三國遺事에 「王이 晝날부터 王位에 오를때까지 항상 婦女의 짓을 하여 錦囊 차기를 좋아했다.」는 錦囊의 기록과 함께 이미 三國時代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보며, 高麗時代에 와서도 徐兢의 高麗圖經 貴婦條에 「檄攬勒巾(腰帶)에 采條로 金鐸을 달고 錦香囊을 찻는데 많은 짓을 貴히 여겼다.」 하였듯이, 여기에 나오는 錦香囊만이 아니라 繡囊도 찻을 것인즉 囊의 愛用度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거니와, 그것은 朝鮮王朝에 내려와서도 여전히였던 것이다.



[圖 5]

등이 있었는데, 염랑은 주머니 둘레가 둥근 것을 말하며, 귀주머니는 양옆에 모가 나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 「주머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염랑과 귀주머니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衣服에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실용적인 면에서도 따로 만들어 차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장식화되어 裝身具의 하나가 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朝鮮王朝時代 女人에게 있어 주머니는 노리개에 달려 있는 경우와 따로 그것만을 차는 경우가 있었다. 노리개에 다는 주머니로서는 前記한 바 繡香囊이 대표적인 하나의 좋은 예이며, 단독적으로

차는 주머니에는 「염랑(夾囊)」, 「귀주머니(角囊)」

주머니는 주로 漢緞·貢緞·錦緞 등 속의 여러가지 色彩를 가진 綢緞種類에다 갖가지 紋樣의 繡를 놓아 그 繡의 圖案에 따라 山水囊, 梅花囊, 桂枝囊, 五福囊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는데, 여기에서 紋樣이 뜻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富貴·長生 등 吉祥을 나타낸 것이었다. 그리고 염랑이나 귀주머니에는 五色의 술을 달아 그 모양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있는데, 그 사용한 천과 色과 付金 여부에 따라 身分의 尊卑·貴賤·上下를 나타내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참고삼아 宮中 撥記에 나타난바 거기에서 주머니에 관한 것을 추려 보고 이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을 가해 보기로 한다.

- ① 황용 자낭
- ② 다홍 린 자낭
- ③ 오색 호 염낭
- ④ 초록, 옥색, 분홍 봉 낭
- ⑤ 다홍 십장생 자낭
- ⑥ 초록, 옥색, 분홍, 다홍, 십장생 낭
- ⑦ 수 청 십장생 자낭
- ⑧ 옥색 십장생 줌치
- ⑨ 초록, 옥색, 분홍, 다홍 오복 꽃광주리 낭
- ⑩ 초록, 분홍, 다홍 오복 꽃광주리 줌치
- ⑪ 옥색 오복 낭
- ⑫ 초록, 분홍, 다홍 꽃광주리 낭
- ⑬ 다홍 꽃광주리 줌치
- ⑭ 초록, 옥색 고목 수 산낭
- ⑮ 초록, 옥색 고무 수 자낭
- ⑯ 초록 고목 수 산줌치
- ⑰ 옥색 고목 수 자줌치
- ⑱ 초록 부금 낭
- ⑲ 초록, 옥색 부금 줌치
- ⑳ 다홍 계지 낭
- ㉑ 오방 낭자 줌치
- ㉒ 다홍 오리 수 산낭
- ㉓ 초록, 옥색, 분홍 수 산낭
- ㉔ 초록, 옥색, 다홍, 자색 수 낭
- ㉕ 초록, 분홍 수 줌치
- ㉖ 초록, 옥색, 분홍, 금향 단낭
- ㉗ 백색, 분홍, 다홍, 남색, 수청 연화 향낭

㉘ 오색층 연화 향낭

㉙ 자색 향갑

위와 같이 발기에 나타난 宮囊의 종류는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것은 크게 나누어서 罽囊(낭)과 귀주머니(쭈치)의 두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그 놓은 繡의 紋樣에 따라 「황룡 자낭」을 비롯해서 각종 「봉낭」과 「十長生 쭈치」, 「十長生 낭」에다 「五福 광주리 낭」, 「五方 낭」, 「연화 향낭」 등이 있는 것을 본다.

황룡 자낭은 龍이 王을 상징하는 吉祥紋이었던 만큼 國王이 찻던 것이며, 각종 봉낭도 鳳凰이 王妃를 상징하는 吉祥紋이었던 만큼 國王妃가 찻던 것인데, 초록인 王妃의 것과는 달리 王도 옥색으로 한 이 鳳紋 주머니를 찻던 것을 볼 수 있다.

十長生紋으로 된 주머니의 十長生에 대하여서는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거니와, 여기에서 「五方囊」, 「五方쭈치」의 五方이라 함은 五行說에서 나온 것으로, 周易에서는 모든 自然의 現像을 陰陽說에 두고 다시 생활의 형태에 대하여 五行說의 이론을 세워 五方, 五氣, 五色, 五德, 五戒, 五福 등으로 나누었는데, 五方은 方向을 이르는 것으로 東, 南, 中央, 西, 北으로서의 삶의 方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五方은 五色으로써 구분할 때, 東은 靑, 南은 紅(赤), 中央은 黃, 西는 白, 北은 黑이었기 때문에 五方囊이나 五方쭈치는 이 五色 비단조각을 모아 만든 주머니였던 것이다. 그리고 蓮花紋에 대하여서도 위에서 설명한 바 있거니와, 宮中에서 이 蓮花紋을 사용한 여러가지 주머니가 있었음은 그 紋이 뜻하는바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宮囊의 끈은 보통 草綠色과 紅色을 썼는데, 紅囊에는 草綠色 끈을, 草綠囊에는 紅色 끈을, 그리고 기타에는 흔히 남색 끈을 꿰었는데, 繡房에서 수를 놓아 들이면 至密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多繪 즉 끈을 가지고 꿰었던 것이다. 이 多繪는 비단실 뿐만 아니라 삼승(麻繩)으로도 짚었다고 하는데, 이 多繪 끝에는 流蘇 즉 五色술이 달려 있었음은 노리개에서와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 囊 발기에서 보면 嘉禮時 외에도 正月 첫 亥日에 大內에서는 물론 宗親들에게까지 「주머니」를 下賜한 것이 보이는데, 이들 주머니는 조그마한 물건이지만 정성어린 잔손이 가고 거기에다 符籙 같은 뜻을 지녔기 때문에 환영받는 膳物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 주머니 속에는 붉은 콩을 꼭 한알씩 넣어서 下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순전히 하나의 民俗의인에서 온 것이라고 보며, 이 주머니를 正月 첫 亥日에 차면 一年 내내 惡鬼를 물리치고 萬福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 民俗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崔南善의 「朝鮮常識」에서 그 說明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歲首의 처음 오는 十二支에는 内外 兩系의 여러가지 習俗이 붙어있고 그것들이 언제부터인지 體系의 相關性을 잃고 각각 遊離한 一個 行事가 되었는데, 그 中에서 比較的 最近까지도 朝廷과 民間을 通하여 오래 保持된 者는 上亥, 上子, 上卯, 上巳에 關한 祈穰의 事實이다.

곧 上亥日은 「뫼날」, 上子日은 「쥐날」이라 하여 民間에서는 角 亥日에 그 嘴端을 焦燒하는 行事가 있으니 대개 豕와 鼠는 農作物에 對한 代表的 害畜이므로 흑 콩을 볶거나 흑 무엇을 태우는

等의 그 주둥이를 지지는 表象的 呪術로서 그害가 적기를 祈祝함인데, 특히 湖西地方에는 炬火를 때로 부쳐서 대규모의 燠鼠火를 設하는 俗이 있으며, 朝廷에서는 宮中の 小宦時 十百으로 하여금 炬火 行進을 設行하여 「뚝회부리 지진다」를 외치면서 宮中으로 周行케 하고 穀種을 태워서 圓長二形의 錦囊에 넣어 閣臣과 宰相에게 頒賜하니 다 年穀을 祈祝하는 意인데, 이 주머니의 圓한 것을 亥囊, 長한 것을 子囊이라 닐렀다.』

여기에서는 곡식이 잘 여물어 豐年과 함께 平安한 生活을 누릴 수 있도록 罔원하는 뜻에서 穀種을 태워 넣은 주머니를 宰臣들에게 下賜하였고, 이 주머니를 차는 것이 年例로 되어 있어 이것이 傳統的인 習俗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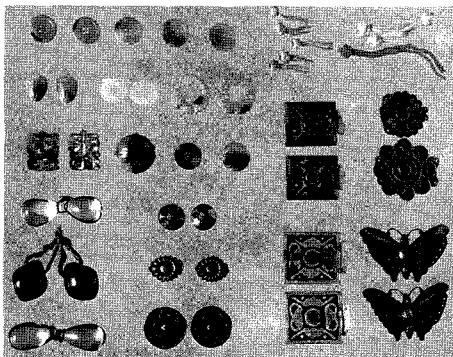
이 宮囊이나 노리개에 쓰이는 노리개끈, 주머니끈, 매듭짓기 같은 것은 至密內人들이 틈틈이 만들었다 함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IV. 단 추

「단추」는 朝鮮王朝時代 女人에게 있어서 원래는 圓衫 등 禮服에나 사용하였던 것이며, 저고리나 여름철 적삼에도 옷고름을 달고 단추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國末 開化期에 접어들면서 단추의 간편함을 좇아 흔히들 여름철 적삼에 옷고름 대신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마고자 등에 고름 대신 사용하였으며, 기타 미관상 간편하게 처리되어야 할 곳에도 달았었다.

단추에는 禮裝用에 사용하던 것으로 金銀·玉石으로 만든 단추가 있었고, 一般用으로는 끈으로 만든 맺은 단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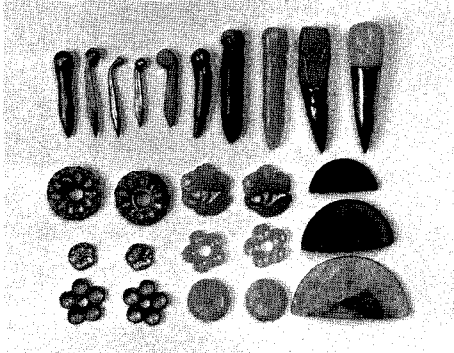
禮裝用 金銀·玉石으로 만든 단추는 나비, 박쥐, 菊花 등 여러가지 모양을 본따기도 하였으며, 또 네모진 것 등에는 각종 紋樣을 새기기도 하여 그 細工技術面에 있어서의 藝術的 價値는 그 여느 다른 장식물이나 다름바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宮中 撥記에 나타난 단추의 이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 그 用途를 알 수 있다.



〔圖6〕

『翟衣 단추, 直金 圓衫 단추, 紫의 長衫 단추, 多紅 鴛鴦 露衣 단추, 불기 단추』 등 맺은 단추는 끈으로써 「매듭」을 맺은 것인데, 그 모양이 야무지고 보통 입는 옷에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장식적 가치는 뒤떨어지는 것이어서 어느덧 前記 金銀·玉石으로 된 禮裝用 단추에 눌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 입는 옷에서도 그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V. 男子의 首飾



[圖 7]

에는 牽牛花樣·梅花樣·笹花樣의 金圈을 하였는데 俗稱 雙리圈이라고도 하였고, 三品에는 牽牛花樣·梅花樣·雜雕花樣의 玉圈을 하였는데 俗稱 手八蓮環者라고도 하였다는 것이며, 堂下官에서 土庶에 이르기까지는 玳瑁·羊角·牛蹄의 小圈을 사용하였고, 庶人에 호사하는 者는 琥珀·明珀 등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後世의 實際를 徵하여 보면, 一品은 아무 雕飾이 없는 민 玉貫子를 붙였는데 그 形은 작고 品質이 좋은 玉으로서 「도리玉」 또는 環玉이라 하였으며, 二品은 金貫子를 붙이되 正二品은 민으로 하여 「도리金」이라 하였고 從二品만은 크게 하여 색임을 놓았으며, 正三品 堂上官은 玉貫子를 붙이되 그 形을 크게 하여 花竹·蓮樣 등을 조각하였고, 堂下三品以下 庶民은 骨·角 내지 玳瑁·瑪瑙·琥珀 등을 사용하였으며, 喪人은 牛蹄를 사용하였었다. 이를 보면 金玉을 통하여 品이 높아갈수록 간소해지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驕亢의 氣習을 억제하려는 徵意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貫子の 이와 비슷한 제도가 中國에도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 나라처럼 엄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風簪……網巾에는 또한 風簪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網巾 앞에 다는 장식품으로 「갓」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도 貴賤을 가려 上流層에서는 玳瑁·琥珀·瑪瑙 등을 사용하였고 一般은 骨·角을 사용하였는데, 그러나 貫子에 있어서와 같이 이것으로 官品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동곳……동곳은 網巾에 달린 부속물은 아니었으나 상투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한편 既婚男子 首飾物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貫子와 같이 品階를 가르는 구실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風簪과 같이 上流階級에서는 金·銀·密花·琥珀·瑪瑙·翡翠·珊瑚·玉 등으로 만들어 꽃임으로써 상투를 장식하였다.

그런데 한 때 검은 馬尾網巾 대신 一部層에서 白종網巾을 女子 尙한 일이 있었다. 燕山君 元年 正月 安陽君 衍이 進香時 承政院에 문기를 白網巾에 象牙圈子를 달려고 하는데 어떻냐고 하자 無妨하다고 하였다.

또 洪直弼의 「梅山集」에서 보면, 喪制로 白笠을 쓰는 경우 尤庵 宋時烈도 白笠에 白網巾을

쓰는 것이 禮俗에 맞는다고 하여 屏溪 尹鳳九, 역泉 宋明欽 등이 白網巾을 썼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網巾은 髻髮之具였기 때문에 朝鮮王朝初부터 머리색과 같은 黑包로 하였던 것이며, 喪中에도 그대로 사용하여 다만 貫子·風簪·동곳 등에 黑色으로 된 것을 하는 것이 常例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喪制로 白笠을 쓰는 경우 白網巾을 하는 것이 禮俗이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一時의 好尙에 연유한 것이었다고 보아진다.